

취리히 공과대학, 즉 ETH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대 중 하나이고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교환학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교환학생을 오고자 한다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교환학생을 오기 전 많은 후기를 읽었고, 제 후기가 다음 교환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현실적인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1. ETH 교환학생의 장점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만큼 다양한 세미나가 자주 열립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유명한 기업인, 경영인, 저명한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열립니다. 따로 공지를 해주지는 않지만 학교에 포스터가 자주 붙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강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학교입니다. 학부는 3년 과정이고 매우 기초만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부 수업은 보통 독일어로 열리기 때문에 교환학생은 석사 수업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고 실습이 동반되는데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에 크게 부담 없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업변경이나 수강취소가 서울대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수업시간이 겹쳐도 신청이 가능하고 원하는 주제의 날에만 출석하여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인터넷강의를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교실에는 전체인원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이용합니다.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유럽 전역을 여행했지만 최고의 경치를 자랑합니다. 스위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스위스 여행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여행은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날씨 좋은날을 골라 떠날 수 있는 것은 최대 장점입니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인종차별은 아예 없는 편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분수를 떠다 마실 정도로 깨끗하고 소매치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대부분 찾습니다. 새벽 2시에 거리에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2. ETH 교환학생의 단점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공대 지원금을 받고 외부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만약 ETH에 교환학생을 오는 이유가 ETH에 뜻이 있거나 스위스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ETH로 교환학생을 온 외국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학부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연이나 연구실의 경우는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 수업만 듣는다면 다른 대학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닐 목적이라면 차라리 독일이나 동유럽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ETH 교환학생 후기

-정착

비자나 거주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메일이 오는 대로, 혹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대부분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주허가를 받는 것도 꽤 비싸기 때문에 첫 달에는 상당히 많은 지출이 생깁니다. 휴대폰 심카드는 lycamobile 이 가장 쌉니다.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10 기가를 14 프랑 정도에 쓸 수 있습니다.

-교통

스위스는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취리히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트램과 버스 티켓은 도착하자마자 monthly ticket 을 끊는 것이 낫습니다. 여행을 위한 기차의 경우는 Halftax 와 Gleis 7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Halftax 는 26 세 이하가 반값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Gleis 7 은 저녁 7 시부터 아침 5 시까지 night train 을 제외한 모든 기차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취리히에서 베른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는 비용을 1/2 로 줄이고 돌아오는 것은 7 시 이후 기차를 이용해 총 1/4 가격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카드는 1 년간 유지되며 300 프랑 정도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는 flixbus 를 주로 이용합니다. 버스가 생각보다 쾌적하고 5 회 이용에 99 유로 바우처를 구매하면 싸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3 개월 이상 거주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학교에서 교환학생 대상 보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출국 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을 들기 전에 다쳐도 보험을 든 후에 보상해줍니다. 가장 싼 것은 한 달 65 프랑이고 비싼 것은 110 프랑입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다면 비싼 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기에 걸려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 10 만원은 기본입니다. 저는 운동을 즐겨서 다칠까봐 비싼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거주

WOKO 를 통해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집이 구해집니다. 교환학생이 가장 많이 사는 숙소사는 3 개로 culman, meierwissen, casar-ritz 가 있습니다. 저는 casar-ritz 에 살았는데 취리히 시내에서 가장 멀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 깔끔합니다. 방 가격은 한 달에 640 프랑 정도였는데 평균치는 550 프랑 정도인 것 같습니다. 14 명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하며 로비층에는 피아노와 파티룸, 탁구대, TV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하나의 부엌이 있고 2 주에 한 번씩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해줍니다. 다만 적당히 치워져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culman 의 경우에는 학교에 붙어있어서 교통비가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취리히 중앙역이 바로 옆입니다. 다만 로비층과 부엌이 조금 협소하고 작습니다. meierwissen 은 거의 140 명이 하나의 부엌을

공유합니다. 굉장히 혼잡하지만 사교성이 좋다면 친구를 사귀기엔 가장 좋습니다.

-학교 수업

모든 수업이 영어로 열리지 않습니다. 학부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석사 수업이 많습니다. 가을 학기는 봄 학기보다 수업이 훨씬 많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동영상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편합니다. 아침 수업의 경우 1/3도 오지 않습니다. 시험 날에는 다들 나타나서 시험을 치는 걸로 보아서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수강변경기간이 한 달에 달하고 수강취소의 경우는 시험 한 달 전까지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것 전부 신청하시고 하나씩 들어보면서 재미있는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생활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스위스지만 식재료는 생각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스위스 마트는 coop, migros, denner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coop은 가장 비싼 대신 유기농 제품이 많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는 50퍼센트 세일 품목이 많아집니다. migros는 coop보다 조금 싸고 술을 팔지 않습니다. denner는 야채 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가공식품은 coop과 동일하고 더 싸입니다. 시내에 나가면 Lidl과 Aldi라는 독일 마트가 있는데 스위스 마트보다 더 싼 편입니다. 야채의 경우는 터키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찾아야 합니다. casar-ritz 근처에는 maxim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체감 상 취리히 최저가입니다.

한인 도서관이 무료로 운영되며 한인 마트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ETH 교환학생은 거의 없지만 취리히 대학교 교환학생은 꽤 있는 편입니다. 한국인이 없어 외로울 일은 없습니다.

학기 시작 전 intensive german course는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 친구들과도 훨씬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수업에서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업이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ESN이라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같은 것이 있는데 다양한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룹 여행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갈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맺음말

장장 7개월간의 교환학생을 끝내려니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살아 보고 싶었던 로망을 실현하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선물하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